



산타할아버지가 주신 복권 1억원 당첨!

메리 크리스마스 이보다 더 즐거운 성탄절은 없다. 크리스마스 이브 기분 내느라 산 복권이 1억에 당첨된 배모 (46. 충주시 연수동)씨. 지금껏 살아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 중에서는 가장 멋진 선물이었다.

조그만 중소기업 부장으로 있는 배씨. 다행히 배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경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업종이라 IMF 때도 별 타격을 입지 않았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다.

배씨가 부장으로 부임한 지 4년여. 전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지금의 회사로 옮겨온 것. 그가 오면서 회사의 성장속도는 가속이 붙었고 따라서 배씨에 대한 사장의 신임도 높아져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볍다.

배씨가 이번에 당첨된 자치복권 1억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사장과 기분 좋게 술 한 잔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고 남은 잔돈으로 산 것이다.

집으로 와 아이들 머리맡에 선물을 놔두고 부인과 함께 이브날 조촐히 사온 복권을 굽는데 이게 웬일인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허걱! 1억원 당첨이라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설마 산타할아버지가 다 큰 어른한테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인 크리스마스날.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좋아하면서 한껏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는데 배씨부부는 마냥 초조한 낯빛으로 빨리 공휴일이 지나가기를 빌었다. 그 날은 은행이 문을 안여는 날이라 달려가 당첨을 확인할 수도 당첨금을 받을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가 가장 길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드디어 다음 날, 배씨는 회사에 전화해 약간 늦는다고 하고 부인과 함께 아침 일찍 은행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확인절차를 밟았다. 1등 당첨복권이 틀림 없다는 은행원의 확인이 끝나자 당첨금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이 배씨 손에 쥐어졌다.